

“미래 기업가들 모여라!”

GIST 집중창업캠프 ‘디자인씽킹 교육’ 성료

- 창업진흥센터,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수 베네치아 호텔&리조트에서 ‘2025년 제1차 집중창업캠프’ 개최
- 디자인씽킹 기반 실전 창업교육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팀워크 역량 강화...
“실질적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



▲ GIST가 2025년 제1차 집중창업캠프를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리조트에서 ‘2025년 제1차 집중창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솔루션 도출’을 주제로, GIST 창업진흥센터가 주관하고 외부 창업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됐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디자인씽킹의 다섯 가지 핵심 단계인 ▲공감(Empathize) ▲문제 정의(Define) ▲아이디어 도출(Ideate) ▲프로토타입 제작(Prototype) ▲테스트(Test)를 전 과정에 걸쳐 실습하며, 사용자 중심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실전 창업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직접 사용자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핵심 문제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후 아이디어를 시제품(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고 최종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 뿐만 아니라 기획력, 설계 능력, 협업 역량까지 두루 강화할 수 있었다.

캠프 둘째 날에는 각 팀이 1일차에 개발한 솔루션에 대해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열린 최종 발표에서는 각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자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산업적 가치 제안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며 실전 역량을 선보였다.



▲ 캠프 마지막 날인 18일에 최종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자 중심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가치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GIST 관계자는 “이번 집중창업캠프는 학생들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전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 창업진흥센터는 집중창업캠프 외에도 창업서포터즈 ▲학생창업동아리 ▲창업미니스쿨 ▲실전·모의창업 프로그램 등 학생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문화 확산과 실전 경험 제공, 기업가정신을 갖춘 예비 창업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